

K-pop 노랫말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

박 준 언

Abstract

Park, Jun-Eon. 2014. 2. 28. **Matrix Language Assignment of Code-switched K-pop Lyrics.** *Bilingual Research* 54, 157-184. In recent years K-pop has obtained distinctive character by its active linguistic hybridization in the lyrics.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matrix language assignment in the Korean/English bilingual code-switches in K-pop lyrics. A total of 242 lyrics were selected from the 14 K-pop groups that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the Korean youths. Analysis of the K-pop lyrics corpus reveals that the overall discourse is determined by the Korean language. Of the total 10,257 song lines selected for the analysis, Korean lines accounted for 58.5% (6,001), followed by English lines (25.3%: 2,597) and Korean/English code-switched ones (16.2%: 1,659). The Korean-dominated linguistic context in K-pop lyrics is claimed to have a strong bearing on the matrix language assignment of the code-switches in the lyrics. In most code-switching cases in the K-pop lyrics, matrix language was rather easily determined due to the structural disparity between Korean and English. (Soongsil University)

【Key words】 K팝(K-pop), 이중언어(bilingualism), 코드전환(code-switching), 기저언어(matrix language)

1. 서론

오늘날 K-pop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젊은 아이돌 가수들의 대중가요는 한류의 거센 바람을 타고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전 세

계 국가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K-pop 은 hip-hop, rap, rhythm-&blues, ballad 등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K-pop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문화의 글로벌화 진행 현상 속에서 특히 대중음악의 글로벌화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상당히 큰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음악의 글로벌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K-pop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K-pop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분석은 Lee의 연구(2004, 2006)가 최초인 것으로 추측된다. Lee는 K-pop을 언어혼종(linguistic hybridization)과 월경(crossing)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K-pop의 노랫말에서 나타난 영어혼용을 몇몇 기능적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또한 K-pop과 일본 대중가요인 J-pop 간의 상호 작용 현상을 월경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K-pop은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에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K-pop의 양적, 질적 변화는 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요구한다. K-pop의 언어혼종 연구의 경우, Lee는 소수의 K-pop 노랫말들을 대상으로 영어혼용의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폭이 제한되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K-pop 그룹의 등장과 함께 생산된 수많은 K-pop 노랫말들에서 영어혼용은 보편적 언어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혼용 현상을 분석하면 K-pop 음악의 사회언어학적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코드전환(code-switching)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자발적인 일상 대화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전환 현상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코드전환은 사적인 영역의 자발적 의사소통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

중 연설, 광고, 문학 작품, 가요 등에서도 이중언어의 코드전환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박준언, 2010; Bentahila와 Davies, 2002; Davies와 Bentahila, 2006; Julca-Guerrero, 2009; Lee, 2004; Omoniyi, 2006; Sarkar, Winer와 Sarkar, 2005). 사적, 자연발화적 영역과 공적, 비자연발화적 영역에서의 이중언어 코드전환 사용에 차이점이 있다면, 사적 대화에서의 코드전환은 자신들의 동료집단들에게 자발적, 즉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비해, 공적 영역에서의 코드전환은 동료집단뿐 아니라 집단 외부의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식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드전환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양자 간에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둘 다 이중언어의 코드전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코드전환 연구에서는 자발적, 즉흥적 언어전환과 의식적, 계획적 언어전환을 구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K-pop 노랫말들의 언어혼용과 코드전환도 이중언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K-pop이 기존의 한국 가요들과 차별화되는 점들 중의 하나가 노랫말들의 과도한 외국어 혼용, 특히 영어 혼용일 것이다. 즉, 대부분의 전통 한국 가요들이 한국어로만 노랫말을 생성하는데 비해, 거의 모든 K-pop은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한 새로운 언어적 형태의 노랫말들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pop 노랫말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코드전환 현상을 언어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K-pop 노랫말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되는 소절들에서 코드전환의 중심언어인 기저언어(matrix language) 설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이중언어 코드전환 기저언어 설정 연구들

이중언어 코드전환에 관한 주요 연구 주제 중의 하나는 이중(다중)언

어 사용자들이 코드전환 할 때 기저언어(matrix language)와 삽입언어(embedded language)를 구별할 수 있는가이다. 즉, 코드 전환에 관계하는 두 언어 중 중심이 되는 언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Poplack(1980), Poplack과 Meechan(1998)은 기저언어 설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코드전환은 두 언어 간의 쌍방향적 접촉현상으로서 두 언어가 대칭적(symmetrical) 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두 언어가 코드 전환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언어 간에 중심언어와 종속언어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Poplack(1980)이 제시한 등가성 제약(Equivalence Constraints)과 자유형태소 제약(Free Morpheme Constraints), Di Sciullo, Musken과 Singh(1986)이 제시한 지배 제약(Government Constraint)은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 간의 역할에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형태소 제약은 코드 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에서 자유형태소(free morpheme)와 종속형태소(bound morpheme)간의 코드전환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제약은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위와 같은 보편적 코드전환 제약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예들을 제시하며 이들 규칙들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있다 (Bentahila와 Davies, 1998; Joshi, 1985; Kamwangamulu, 1989; Myers-Scotton, 1991; Nishimura, 1986; Park, 1990; Petersen, 1988; Sridhar-Sridhar, 1980).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 간에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로 인해서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 사이에 중심 언어와 종속 언어의 위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Petersen(1988)은 지배언어(dominant language)와 피 지배언어(non-dominant language), Sridhar와 Sridhar(1980)는 주언어(host language)와 객언어(guest language), Joshi(1985)는 기저언어(matrix language)와 삽입언어(embedded language)의 용어를 사용하며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Kamwangamalu (1989)의 기저코드 원리(Matrix Code Principle)나 Myers-Scotton(1991)의 기저언어 프레임 모형(Matrix Language Frame Model)은 이러한 비대칭성을 전제로 제시된 것이다.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의 비대칭적 위상을 일컫는 용어들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Joshi의 기저언어, 삽입언어가 코드전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중언어의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 간에 비대칭적 역할이 존재할 경우, 기저언어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학자들 간에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다수의 코드전환 연구들은 언어구조를 바탕으로 기저언어와 삽입언어를 구분하고 있다. Trefffers-Daller(1990)는 문장의 주동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Joshi(1985)는 문장의 첫 번째 주요 구성소(constituent)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Nishimura(1986)는 어순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코드전환의 기저언어를 설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언어구조 이외에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여 기저언어 설정을 시도한다. Petersen(1988)은 언어 능숙도를 기준으로 기저언어를 설정하고 있고, Kamwangamalu(1989)는 사회언어학적 맥락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Myers-Scotton(1990)은 심리언어학적 기준과 사회언어학적 기준을 동시에 사용하여 기저언어를 설정하고 있다. Myers-Scotton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중언어 화자가 사용하는 두 언어 중 보다 높은 언어 능숙도를 보이고, 또한 보다 많은 언어사용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Myers-Scotton은 한걸음 더 나아가, 코드전환이 발생하는 담화에서 보다 많은 형태소(어휘)를 지닌 언어가 기저언어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형태소의 빈도도 기저언어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자들 간에 기저언어 설정의 기준이 다양할 뿐 아니라, 기저언어 설정의 언어적 단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Joshi

(1985)와 Doron(1983)은 문장을 기저언어 분석의 단위로 삼고 있으며, Nishimura(1986)는 복문의 경우, 주절과 종속절을 분리해서 기저언어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Nortier(1989)는 문장 단위와 담화단위를 구분하여 기저언어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며, Myers-Scotton(1993)은 담화가 기저언어 설정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entahila와 Davies(1998)는 코드전환에 관여하는 두 언어의 비대칭적 역할을 전제로 기저언어 설정에 대해, 단일 요소를 기준으로 기저언어를 설정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을 위해 이중언어 담화의 지배성, 언어 능숙도, 언어습득 순서, 언어 용법, 언어의 상징적 가치, 형태소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 분석방법

K-pop 노랫말의 이중언어 코드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에 국내외에서 청소년층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 K-pop 그룹들의 노랫말들을 수집하였다. 노랫말 수집은 국내의 대표적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를 통해 K-pop 그룹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곳에 공개되어 있는 노랫말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K-pop 노랫말들은 2NE1, 2PM, 비스트, 빅뱅, 샤이니, 소녀시대, 씨엔블루, 에프엑스, 원더걸스, 인피니트, 티아라, 포미닛, ft아일랜드, 슈퍼주니어 등 총 14개 그룹들의 앨범들에 수록된 것들이었으며, 총 242곡을 선정해서 노랫말들을 수집하였다. 이들 K-pop 그룹들은 201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하여 현재도 활발하게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로서 이들의 노래들은 K-pop 음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언어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기준설정 및 기저언어 설정의 언어 단위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Bentahila와

Davies(1998)의 포괄적 기준이 다양한 이중언어 사용 상황의 코드전환 현상들을 보다 융통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기준을 사용한 기저언어 설정시도보다 타당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K-pop 노랫말의 이중언어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을 위해 언어 능숙도, 이중언어 담화의 지배성, 형태소의 빈도, 언어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4. K-pop 노랫말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

K-pop 작사가들의 언어적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기존의 전통가요의 작사가들과 달리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사용능력이 상당히 높은 집단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즉, 전통가요 작사자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은 세대로서 영어 사용권 국가들에서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상당한 영어사용능력을 확보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 가요들의 작사가들에 비해 이들에게는 영어사용이 그다지 낯설지 않고 언어사용 면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K-pop의 일차적 대상인 한국의 청소년 집단도 기성세대들과 달리 영어사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낮은 세대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로서 기존 세대와 달리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해 영어를 학습해왔고, 우리사회가 급속히 글로벌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영어를 접해온 세대이다. K-pop 노랫말들의 적극적인 영어 사용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된 K-pop 노랫말들이 젊은 세대의 한국인 청중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치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K-pop 노랫말 작사가들의 영어사용능력이 우수하다하더라도

도 자신들의 음악을 공유하는 집단의 언어적 공감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반적 영어사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K-pop의 주 고객인 젊은이들이 비록 기성세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영어사용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이들의 영어사용능력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어의 위상이 모국어나 공용어가 아니라 단순 외국어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영어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영어교육은 주로 학교 공교육을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어의 사회적 통용성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K-pop 대상 집단의 전반적 영어사용능력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K-pop 노랫말 작사가들의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능력과 K-pop의 주 대상인 청소년층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한 K-pop 노랫말들은 이러한 언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가 지배언어이고 영어가 피지배 언어인 점, K-pop 대상 집단의 영어 능숙도가 상당히 낮은 점은 일차적으로 K-pop 노랫말들의 코드전환의 기저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는데 주요한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K-pop 노랫말들을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노랫말 담화의 지배언어가 한국어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지배의 담화구조 속에서 영어가 피지배 언어로서 삽입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yers-Scotton(1991)은 이중언어 담화의 두 언어 간의 형태소의 빈도수로 지배언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entahila와 Davies(1998)는 형태소(어휘)의 빈도수보다 구절(clause)의 빈도수로 언어적 지배성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중언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K-pop 노랫말들의 경우 한국어가 지배언어임을 알 수 있다. <표 1>은 14개 K-pop 그룹의 총 242곡의 노랫말들의 소절) 수를 분석한 표이다.

<표 1> K-pop 노랫말들의 언어별 소절 수

그룹명	소절 수	한국어	영어	한국어/영어
2NE1 (18)	1,033	601(58.2)	265 (25.7)	167 (16.2)
2PM (19)	587	396 (67.5)	106 (18.1)	85 (14.5)
비스트 (19)	849	505 (59.5)	235 (27.7)	109 (12.8)
빅뱅 (18)	1,157	653 (56.4)	344 (29.7)	160 (13.8)
샤이니 (18)	770	451 (58.6)	134 (17.4)	185 (24.0)
소녀시대 (10)	342	203 (59.4)	48 (14.0)	91 (26.6)
씨엔블루 (20)	683	403 (59.0)	154 (22.5)	126 (18.4)
에프엑스 (20)	752	424 (56.4)	164 (21.8)	164 (21.8)
원더걸스 (5)	293	151 (51.5)	91 (31.1)	51 (17.4)
인피니트 (17)	580	93 (16.0)	447 (77.1)	40 (6.9)
티아라 (19)	696	457 (65.7)	127 (18.2)	112 (16.1)
포미닛 (19)	896	434 (48.4)	278 (31.0)	184 (20.5)
ft아일랜드 (20)	712	650 (91.3)	33 (4.6)	29 (4.1)
슈퍼주니어 (20)	907	580 (63.9)	171 (18.9)	156 (17.2)
총 242곡	10,257	6,001 (58.5%)	2,597 (25.3%)	1,659 (16.2%)

총 10,257개의 소절 중에서 한국어 소절 수는 6,001개로 전체의 58.5%를 이루고 있고, 영어 소절 수는 2,597개로 25.3%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가 혼용된 소절 수는 1,659개로서 전체의 16.2%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pop 그룹 대부분이 언어별 소절 수 비율 면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ft아일랜드’의 경우 한국어 소절 수 비율이 91.3%로서 노랫말들이 거의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인피니트’는 영어 소절 수 비율이 77%로서, 노랫말의 대부분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다한 영어 소절 비율은 대상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 청중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K-pop 노랫말들에

1) K-pop 노랫말들의 소절의 수는 편의상 노랫말 행(line)의 수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은 구, 절, 문장을 아우르는 언어 단위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K-pop 가사들의 노랫말 행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제시된 가사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원 곡들의 노랫말 행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 영어 소절 및 한국어/영어 혼용 소절을 합한 비율이 41.5%에 이르는 점은 K-pop 노랫말들이 기존의 전통가요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중언어의 광범위한 사용은 K-pop의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소절 수 중에서 한국어 소절 수 비율이 60% 정도에 이르는 점은, 한국어가 여전히 K-pop 노랫말 담화 구조를 지배하는 언어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아래 (예문 1)의 K-pop 노랫말에 나타난 총 46개의 소절 중에서 한국어 소절이 19개, 영어 소절이 15개, 한국어/영어 혼용 소절이 12개로서 전반적으로 한국어 소절이 가장 많고 전반적인 노랫말 담화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가 K-pop 이중언어 노랫말의 지배적 언어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K-pop 노랫말들의 한국어 지배적인 담화 구조는 한국인 청중이 아닌 타국 청중, 예를 들어 일본인 청중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K-pop 그룹들의 노랫말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예문 1)

지나간 시간을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아
 항상 날 부르던 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은 널 향해만 가잖아
 이제 난 어떡해 난 이제 어떡해
 Don't you tell me why
 Don't let me down
 돌아와 자꾸 너만 생각나
 제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I'm going out of my mind
 안 보이잖아 네가

Tell me I can go go go 너에게로 다시 you you you
 너 없인 안 돼 true true true
 네가 필요해 너에게로 back to you
 Come back to you (uh uh oh uh uh oh)
 Because of you (uh uh oh uh uh oh)
 I remember you (uh uh oh uh uh oh)
 네가 필요해 너에게로 back to you
 널 향한 마음을 비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아
 난 오직 너인데 오직 난 너인데
 Don't you tell me why
 Don't let me down
 너와의 추억들만 떠올라
 잊을 수 없어 (지울 수 없어)
 가끔 날 떠올리긴 할 지
 못된 사람아
 Tell me I can go go go 너에게로 다시 you you you
 너 없인 안 돼 true true true
 네가 필요해 너에게로 back to you
 Come back to you (uh uh oh uh uh oh)
 Because of you (uh uh oh uh uh oh)
 I remember you (uh uh oh uh uh oh)
 네가 필요해 너에게로 back to you
 스쳐간 바람만도 못한가 봐 나 ah ah
 차갑게 떠났어도 밉진 않아 네가
 지겹게 지독하게 널 그려내
 또 아프게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I say no more
 Tell me I can go go go 너에게로 다시 you you you
 너 없인 안 돼 true true true

네가 필요해 너에게로 back to you

Come back to you (uh uh oh uh uh oh)

Because of you (uh uh oh uh uh oh)

I remember you (uh uh oh uh uh oh)

네가 필요해 너에게로 back to you

매일 나와 함께 있던 널 꿈 속에서만 바라보는 게 참 힘들어

차라리 악몽이라면 깨어나면 모든 게 다 그대로일 텐데

(비스트, Back To You)

K-pop 노랫말 담화의 전반적 지배언어가 한국어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분석된 K-pop 노랫말 총 소절 수의 16.2%를 차지하는 한국어/영어 혼용의 코드전환 소절들도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드전환이 포함된 구문의 연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면 이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동일한 소절 내에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코드전환이 발생할 경우 기저언어 설정은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상이성을 기초로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양 언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기본적 어순이다. 즉,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인데 비해, 영어는 주어-동사-목적어 어순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영어의 어순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의 어순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가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어순의 차이 이외에도 양 언어 간에는 다양한 대칭적 구조들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대칭 구조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영어
명사 + 조사	전치사 + 명사
보어 + 서술동사	서술동사 + 보어
명사 + 존재동사	존재동사 + 명사

부사 + 동사	동사 + 부사
형용사 구/절 + 명사	명사 + 관계대명사절
절 + 보문소	보문소 + 절

위와 같은 한국어와 영어 간의 기본적 어순의 상이성과 양 언어 간의 거울형(mirror image) 대칭구조를 사용하여 한국어/영어 언어전환의 기저언어를 설정을 설명할 수 있다.

(예문 2)

오늘은 *girlfriend*들과
 처음 *club* 가는 날 가슴 설레어 ...
 (2NE1, Let's Go Party)

이 예시문은 전형적으로 한국어 어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girlfriend’와 ‘club’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일어휘의 코드전환의 경우, 이를 코드전환의 예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차용어(loan word)나 외래어(borrowing)로 볼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Sridhar와 Sridhar(1980)은 언어 형태적 방법을 사용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차용어나 외래어는 다음의 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주언어(host language)의 어휘 결핍을 메워줌
- 단일 어휘에 국한됨
- 주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승인된 어휘들로 제한됨
- 음운론적, 어휘형태론적 면에서 주언어에 동화됨
- 일반적으로 주언어 사용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Sridhar와 Sridhar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K-pop 노랫말들의 이중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단일 어휘들의 코드전환 사례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발적 이중언어 대화상황에서는 단일어휘의 코드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복잡하지만 K-pop 노랫말처럼 말이 아닌 문자로 이중언어 사용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어휘의 코드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의의로 간단하다. 즉, 노랫말에 한국어와 영어 대사가 각각의 언어로 서술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Sridhar와 Sridhar가 제시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단일어휘의 코드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 철자로 기술된 단일 어휘는 모두 코드전환의 예로 포함시켰으나, 영어 어휘라 하더라도 한국어 철자로 쓴 영어 어휘들은 차용어나 외래어로 취급하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일 어휘가 아닌, 구, 절의 코드전환의 경우에도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를 기반으로 기저언어를 설정할 수 있다.

(예문 3)

밖에선 터프한 *Gangster boy*

집에선 영락없는 *Mama's boy* ...

(2NE1, *Pretty Boy*)

위 예문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 + 명사’의 한국어 어순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기저언어에 영어 명사구가 삽입된 코드전환이다. 만약 영어가 기저언어라면 ‘*Gangster boy*’, ‘*Mama's boy*’가 수식어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Mama's boy*’의 경우, 기저언어인 한국어 구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어 구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적으로는 한국어 기저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삽입된 언어 요소 내에서는 삽입언어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Myers-Scotton (2001)은 코드전환 시에 하위 보문소(*complementizer*)는 상위 보문소에

종속되며 상위 보문소의 형태통사적 특성이 기저언어를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상위 보문소에 종속된 하위 보문소는 기저언어가 아닌 삽입언어의 통사형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바, 이를 삽입언어 섬(embedded language island)이라 부른다.

(예문 4)

머물고파 Tonight 그대 곁에 잠 못 드는 밤이 난 너무 긴데
 내 맘 안다면 *why you wanna leave me* ...
 (2NE1, Please Don't Go)

이 예문에서, ‘내 맘 안다면 *why you wanna leave me*’ 자체만으로는 기저언어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문장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영어 둘 다 기저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기저언어이면 ‘*why (do) you wanna leave me*’가 삽입절이 되고, 반대로 영어가 기저언어이면 ‘내 맘 안다면’이 삽입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 자체만으로는 언어전환의 기저언어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앞 소절관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노랫말 소절은 한국어가 기저언어이고 ‘*why you wanna leave me*’가 삽입언어 요소로 삽입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why you wanna leave me*’는 삽입언어 섬으로서, 전체적 언어구조는 한국어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삽입언어 섬 내에서는 삽입언어인 영어의 문법적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저언어 규칙과 삽입언어 규칙이 하나의 코드전환 현상 내에서 공존하는 것을 Myers-Scotton(2001)은 타협전략(compromise strategies)라고 부른다. 타협전략의 일환으로 기저언어인 한국어 구조와 삽입언어인 영어 구조가 공존하는 코드전환의 예들은 K-pop 노랫말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문 5)

다 같이 날아보자 *up in the sky*

더 높이 갈테니 정신을 붙잡아 ...

(2NE1, 날 따라 해봐요)

모두 다 *Get out of the way* 이제 내가 더 *Higher ...*

(포미닛, Who's Next)

자신감 하늘 향해

뻐뻐 당당하게

원한다 해도 *Can't touch this ...*

(2NE1, 아파)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시 모아서 *Burn, Let it burn Burn, Let it burn ...*

(2PM, Don't Stop, Can't Stop)

맘에도 없는 소리를 그대에게 보내요

주먹을 꼭 쥐고 *good luck to you ...*

(Beast, 주먹을 꼭쥐고)

한순간에 모든걸 앗아갈 *like a Poker game ...*

(빅뱅, 할렐루야)

유리조각처럼 부서진

우리 둘이 *break it now ...*

(씨엔블루, Love)

널 부르던 너의 *Boys and ladies*

모두가 여기에 *Come back to me now ...*

(포미닛, Whatever)

나를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Why you say goodbye*

이대로 보낼 순 없어 *never because I love you ...*

(씨앤블루, 직감)

마치 비밀에 갇힌 미래에 지킬래 놓치기 싫은 너기에

이 길의 끝엔 *you must love me ...*

(인피니트, BTD)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K-pop 노랫말의 코드전환 사례들의 기저언어는 대부분 한국어이지만, 영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하는 코드전환 사례들도 일부 발견되었다.

(예문 6)

Now let's 춤을 춤을 춤을 취요 wanna get down? ...

(2NE1, Fire)

I wanna go back 함께했던 그 때로 ...

(씨앤블루, Love)

자락을 피해 *fly to my heart. I'll be there by your side ...*

(인피니트, B. T.D)

Early in the morning 오늘도 역시 The sun is hiding ...

(비스트, Shadow)

위의 예문들에서 이중언어 혼용의 K-pop 노랫말 소절들에서 영어 구조에 한국어가 종속적으로 삽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어가 이들 이중언어 구문의 기저언어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코드전환 사례들의 경우, 얼핏 보기에는 양 언어 간에 주종관계를 설정할 수 없어 기저언어 설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 언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저언어 설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문 7)

난 너무 불안해져 when i miss you ...

...

이 밤은 아름다워 when i'm with you

떠나지마요 내 곁에 stay ...

(2NE1, Please Don't Go)

기다릴 수 있어 till you come back ...

(2PM, I Can't)

I want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이 긴 밤이 다 가기 전에 ...

(빅뱅, Somebody to Love)

위 예문들에 나타난 시간종속절과 주절이 결합한 복문의 경우, 한국어의 무표적(unmarked) 구조는 ‘종속절 + 주절’ 순서일 것이다. 물론 ‘주절 + 종속절’의 어순도 가능하지만 이는 강조, 태도, 등의 특수한 효과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유표적(marked) 구조인 것이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 ‘시간종속절 + 주절’ 과 ‘주절 + 시간종속절’의 어순 둘 다 무표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어의 경우 ‘시간종속절 + 주절’ 구문이 유표적 구조인데 비해, 영어에서는 이 구문이 무표적으로 사용되는 구문이다.

로 위 예문들의 기저언어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적합할 것이다. 무표적, 유표적 구문에 의한 기저언어 설정은 다음의 예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문 8)

Everybody plz don't stop 내 목소리 들리게
아침해가 밝아와도 *just we belong together ...*
(빅뱅, Hands Up)

Somebody to love (can you hear me) i want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이 긴 방황을 멈추게 ...
(빅뱅, Somebody To Love)

위 예문들의 경우, 영어의 ‘주절 + so that ~’ 구문을 보여주고 있으며, ‘so that ~’ 부분에 한국어가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무표적 구문은 이와 반대의 어순이다. 즉, ‘내 목소리가 들리게 모두 멈추지 마라(Everybody plz don't stop)’, ‘긴방황을 멈추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이 무표적 어순이다. 위 예문들이 전체적으로 영어의 무표적 구문을 따르고 있으므로 영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다음 예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문 9)

Juliette! ho 영혼을 바칠께요 so I get you ...
(샤이니, Juliet)

이처럼 K-pop 노랫말의 코드전환에서 영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 수 발견되는 것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전환을 연구한 본인의 연구(Park, 1990)에서는 한국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한 예들이 전체 코드전환 사례들 중에서 97.4%의 압도적 비율을 보인 반면, 영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한 예는 불과 2.6%에 머물렀다.

본 연구에서는 K-pop 노랫말들의 코드전환 사례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일반적 대화상황에서 발견되는 코드전환과는 달리, K-pop 노랫말의 코드전환들은 동일한 코드전환 내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요의 특성상 노래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후렴구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코드전환이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코드전환들이 되풀이되어 발견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K-pop 노랫말의 코드전환 사례(token)들을 일일이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사례들 대신 이들을 대표하는 코드전환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예문 10)은 동일한 내용의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고, (예문 11)은 노래의 주제가 되풀이되어 사용되고 있는 예를 보여준다.

(예문 10)

...

In the club 오늘밤 그에게

In the club 내 모든걸 줄래

In the club 니가 그녀와 그랬던 것처럼

쉽게 사랑할래

In the club 오늘밤 그에게

In the club 내 모든걸 줄래

In the club 내 아픈 상처까지 안아줘

오늘밤만은 너를 잊을수 있도록

...

In the club 오늘밤 그에게
In the club 내 모든걸 줄래
In the club 니가 그녀와 그랬던 것처럼
쉽게 사랑할래
In the club 오늘밤 그에게
In the club 내 모든걸 줄래
In the club 내 아픈 상처까지 안아줘
오늘밤만은 너를 잊을수 있도록

...

아직도 꿈속에 니가 보여
이젠 널 놓겠어 다시 너도 나를 찾지마
In the club 오늘밤 그에게
In the club 내 모든걸 줄래
In the club 니가 그녀와 그랬던 것처럼
쉽게 사랑할래
In the club 오늘밤 그에게
In the club 내 모든걸 줄래
In the club 내 아픈 상처까지 안아줘
오늘밤만은 너를 잊을수 있도록

In the club...

In the club...

In the club.... (2NE1, In the Club)

(예문 11)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Cuz I can't forget your love*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그대 생각만 하면

갈수록 깊어만 가 *I can't stop thinkin' about your love*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모든 것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돌아온다면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난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Cuz I can't
I can't forget your love

그대 생각에 못 드는 밤을 지새우다
흐를 것 같은 눈물을 참지 못해 가끔 혼자 *I cried*

이 세상에 그대 밖에 없는 나였기에
그대를 잃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So I can't forget your love
잊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 내겐 가치 없는 일이라서
그댈 떠올리는 일이 매일 내게는 숨쉬는 것만큼 소중한
I can't forget your love girl you know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everything I need you back
기다릴 수 있어 *till you come back*
Come back to me
(2PM, *I Can't*)

K-pop 노랫말의 코드전환 사례들에서 영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하는 예들이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일반 대화상황에서보다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동안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코드전환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영어의 코드전환의 기저언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사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K-pop 노랫말들의 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 코드전환이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들로서 작사가들이 의도적으로 영어가 기저언어로 작동되는 코드전환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특수한 음악적 효과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어를 기저언어로 하는 코드전환을 생성해내었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K-pop 노랫말 작사가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코드전환을 창조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코드전환 현상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코드전환이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전략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K-pop 노랫말 작사가들도 이중언어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을 자신들의 특수한 메시지나 효과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K-pop 노랫말의 코드전환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중 한 언어만이 기저언어로 설정되지 않고 양 언어 모두 기저언어로 설정될 수 있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예문 12)

어딜 가든 *I will think of you*

언제나 늘 곁에 늘 옆에 ...

(2NE1, 사랑을 아아아)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마다

I can give you electricity, I can give you electricity ...

(2PM, Electricity)

니가 힘들 땐 언제나 *I'll be there*
아무때나 내게 와 나의 품에 안겨 ...
(비스트, I want)

아침해가 밝아와도 *just we belong together* ...
(빅뱅, Hands Up)

위 예문들 중 3개는 복합관계부사절이 포함된 복문으로서 한국어와 영어 모두 ‘종속절 + 주절, 어순의 가능한 구조이다. 마지막 예문은 ‘양보절 + 주절’의 구문으로서 이 역시 한국어와 영어 모두 가능한 어순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어와 영어 둘 다 기저언어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한 언어만으로 기저언어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영어의 경우, 복합관계부사절이 포함된 복문의 어순은 ‘종속절 + 주절’과 ‘주절 + 종속절’ 둘 다 무표적 구문으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종속절 + 주절’은 무표적 구문인 반면 ‘주절 + 종속절’은 유표적 구문이기 때문에, 양방향 어순 모두 무표적으로 사용되는 영어를 위 예문들의 기저언어로 설정할 수 있겠지만, 표면상으로는 위 예문들 모두 양 언어를 기저언어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이 예문들에서는 특정의 기저언어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 K-pop 노랫말들에 나타난 코드전환 사례들의 기저언어 설정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pop 노랫말들은 기존의 전통 가요들과 달리 영어 혼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K-pop의 경우 이중언어 사용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K-pop 노랫말들의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분석결과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일반 대화상의 코드전환과 마찬가지로 K-pop 노랫말의 코드전환에서도 한국어와 영어가 비대칭적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코드전환 사례들의 절대 다수에서 한국어가 기저언어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가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어가 지배언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영어는 피지배언어의 위상에 머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국어가 언어전환의 기저언어로 작동하고 영어는 삽입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한국어 지배의 K-pop 노랫말 담화구조 속에서, 한국어/영어 코드전환 소절들의 기저언어 설정은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대화상황에서의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코드전환의 기저설정을 연구한 연구(Park, 1990)와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K-pop 노랫말들의 이중언어 코드전환 사례들이 자연적 대화 상황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코드전환처럼 심리언어학적 실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코드전환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중언어 사용 현상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박준언(2010). 우리나라 광고문들의 이중언어사용 분석, <이중언어학> 43호, 이중언어학회. 131쪽~162쪽.

- Bentahila, A. & Davies, E. E.(1998). Codeswitching: an equal partnership? In R. Jacobson (Ed.), *Codeswitching worldwide* (pp. 25-49). New York: Mouton de Gruyter.
- Bentahila, A. & Davies, E. E.(2002). language mixing in rai music: localization or globalisation? *Language & Communication*, 22, 187-207.
- Davies, E. E. & Bentahila, A.(1989). On mother and other tongues: the notion of possession of a language. *Lingua*, 78, 267-293.
- Davies, E. E. & Bentahila, A.(2006). code switching and the globalization of popular music: the case pf North African rai and rap. *Multilingua*, 25(4), 367-392.
- Doron, E.(1983). On formal models of code-switching. *Texas Linguistics Forum*, 22. 35-59.
- Joshi, A. K.(1985). Processing of sentences with intrasentential code switching. In D. Dowty, L. Karttunen, & A. Zwicky (Eds.), *Natural language parsing: Psychological, computation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viersity Press.
- Julca-Guerrero, F.(2009). Word borrowing and code switching in Ancash *Waynu* songs. *Language, Meaning, and Society*, 2, 69-106.
- Kamwangamulu, N. M.(1989). *Code-mixing across languages: Structure, functions, and constrai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ee, J. S.(2004). Linguistic hybridization in K-Pop: discourse of self-assertion and resistance. *World Englishes*, 23(3), 429-450.
- Lee, J. S.(2006). Crossing and crossers in East Asian pop music: Korea and Japan. *World Englishes*, 25(2), 235-250.
- Myers-Scotton, C.(1990). Intersections between social motivations and structural processing in code-switching. *Papers for the workshop on constraints, conditions and models*, 57-81. [EFS Network on Codeswitching and Language Contact, Strasbourg]
- Myers-Scotton, C.(1991). Whither code-switching? Prospects for cross-field collaboration: Production-based models in code-switching. *Papers from the Barcelona Symposium on code-switching in bilingual studies: Theory, significance and perspectives 1*, 207-232. [EFS Network on Codeswitching and Language Contact, Strasbourg]
- Myers-Scotton, C.(2001). The matrix language frame model: developments and responses. In R. Jacobson (Ed.), *Codeswitching worldwide II* (pp. 23-58).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Nishimura, M.(1985).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in Japanese/English.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Nortier, J.(1989). *Dutch and Moroccan Arabic in contact: code-switching among Moroccans in the Netherlands*. Utrecht: Foris.
- Omoniyi, T.(2006). Hip-hop through the world Englishes lens: a response to globalization. *World Englishes*, 25(2), 195-208.
- Park, J.(1990). *Korean/English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matrix language assignment and linguistic constrai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Petersen, J.(1988). Word-internal code-switching constraints in a bilingual child's grammar. *Linguistics*, 26, 479-493.
- Poplack, S.(1980). Sometimes I'll start a sentence in Spanish y termino en espanol: toward a typology of code-switching. *Linguistics*, 18, 581-618.
- Poplack, S. & Meechan, M.(1998). Introduction: how languages fit together in codemix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2(2), 127-138.
- Sarkar, M., Winer, L. & Sarkar, K.(2005). *Multilingual code-switching in Montreal hip-hop: mayhem meets methods*. Proceeding of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lingualism.
- Sciullo, A., Musken, P. & Singh, R.(1986). Government and code-mixing. *Journal of Linguistics*, 22, 1-24.
- Sridhar, S. & Sridhar, K.(1980). The syntax and psycholinguistics of bilingual code-mixing.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Revue Canadienne de Psychologie*, 34, 407-416.
- Treffers-Daller, J.(1990). Towards a uniform approach to code-switching and borrowing. *Papers for the workshop on constraints, conditions and models*, 259-277. [EFS Network on Codeswitching and Language Contact, Strasbourg]

박준언(Park Jun-Eon)

승실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6-74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전화번호: 02-820-0341

전자우편: pjeon@ssu.ac.kr

184 이중언어학 제54호(2014)

접수일자: 2013년 12월 2일

심사(수정)일자: 2014년 1월 22일

게재확정: 2014년 2월 5일